

# 기독교가 대학생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적 안녕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 충남 1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

강 은 정\*  
이 재 희\*\*

## 논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을 자살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으로서 기독교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영향이 영적 안녕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12월 충남의 1개 대학의 대학생 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독교인은 무교인에 비해 자살 생각이 더 낮았고, 이는 영적 안녕의 두 하위 개념인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의 매개효과 때문인 것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종교적 안녕, 즉 종교적 헌신(committment)이 실존적 안녕보다 기독교와 자살 생각의 관련성을 더 많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과 타인 혹은 공동체와의 관계보다는 개인과 신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기독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독교인의 사회적 지지는 무교의 사회적 지지와 차이가 없었고 따라서 기독교와 자살 생각의 매개요인이 되지 못했다. 이는 교회에서의 성도들 간의 만남이 재정적, 심리적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대학생, 기독교, 자살, 영적 안녕, 사회적 지지

---

\* 주저자, 순천향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가천대학교 교수

2013년 5월 9일 접수, 6월 12일 최종수정, 6월 20일 게재확정

## I. 서론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2010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다. 대학생이 포함된 20세-29세 연령계층의 2010년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살사망률의 평균보다 낮았으나, 이 수준 또한 우리나라 다음으로 자살사망률이 높은 헝가리와 일본의 자살사망률인 10만 명당 23.3명과 21.2명보다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11: 45). 특히 20대 청년들의 전체 사망원인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구성비는 44.9%에 이르고 있어(통계청, 2011: 7) 이들에게 자살이 큰 건강의 위협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 청년들 가운데 대학생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취직, 군복무,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어떤 연령층보다도 많은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최순옥·김숙남, 2011: 190). 많은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까지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 속에서 과도한 기대와 보호, 통제 중심의 의존적이고 타율적인 생활을 한다(최순옥·김숙남, 2011: 190). 그러면서 대학교 때 좋은 학점을 받고 취직하기 위해 경쟁하며, 취직의 실패 등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좌절과 결핍, 슬픔과 고통에 대한 수용성이 과거에 비해 낮아 쉽게 자살을 고려할 수 있다(김정진, 2009: 420). 이런 점에서 특히 대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자살의 보호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자살을 높이는 요인을 발견하여 그 요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도 있지만, 자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요인을 강화시킴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살 보호요인이란 개인들의 심리적·행동적 문제발생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위험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저항하게 만들고 적응능력을 키워준다(김희숙 외, 2012: 1-2). 대학생의 자살 보호 요인으로 연구된 개념으로는 삶의 의미,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애착, 자아정체감, 영적 안녕 등이 있다(김희숙 외, 2012: 2).

뒤르켐(2009: 274)은 종교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종교는 “성스럽거나 초월적인 존재와 가까워지는 것을 촉진하는 조직화된 신념, 관행 및 의식 체계”로 정의된다(Rasic et al., 2011: 390). 대부분의 종교

는 자살을 부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살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증 연구의 결과들은 종교의 이러한 보호 효과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다 (Nelson et al., 2012: 66). 따라서 종교와 자살의 관계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연구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외국에서는 정신적 장애와 위험 행동의 발생과 지속에 대항하는 잠재적인 보호요인으로서 종교를 검토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 자살 연구에서 종교는 통제변수로서 주로 사용되고 자살에 대한 독립적인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최지영(2012)의 연구가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자살을 예방함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교가 자살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는 네 가지 이론적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Boyd and Chung, 2012: 1568). 첫째, 뒤르껀이 말한 종교적 통합, 즉 어떤 종교적 종파 내에서 공유되는 신념과 관행의 수준이 자살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이다. 뒤르껀은 당시 가톨릭이 기독교에 비해 더 강한 집단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의 자살률이 더 낮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Stark et al.(1983: 124)이 주장한 종교적 헌신(commitment) 관점이다. 즉, 사회적 통합의 수준에 상관없이 종교적 신념(예, 사후세계와 사탄)은 자살에 강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뒤르껀에 의해 제안된 개념인 도덕 공동체(moral community) 논지이다. 이것은 한 집단 내의 종교 수준이 그 집단 내 개인들의 행동과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도덕 공동체에서는 종교를 가진 개인뿐만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종교적 가르침이 강화된다고 가정된다. 실제로 네덜란드 도시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도시 내 종교 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인구의 자살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van Tubergen et al., 2005: 797). 넷째, 종교와 자살의 관계는 사회적 연결망(network)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다(Pescosolido and Georgianna, 1989: 33). 이것은 종교 자체보다는 교회 등의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종교인들 사이의 사회적 유대, 사회적 지지가 자살 위험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Robins와 Fiske(2009: 386)는 기도와 같은 사적인 종교행위보다는 교회 출석과 같은 공적인 종교행위가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더 많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네 가지 관점은 Stack와 Kposowa(2011: 289-306)가 수행한 World Values Survey에 의해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종교가 자살에 어떤

기전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가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기전에서 그러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기독교와 자살 생각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적 헌신의 측정도구로서 영적 안녕과 사회적 연결망의 측정도구로서 사회적 지지가 각각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교집단과 기독교집단 사이에 자살 생각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독교는 영적 안녕을 매개로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기독교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종교적 전통과 자살의 관계

많은 종교들이 자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불교는 유대교, 천주교, 혹은 기독교와 달리 우주의 근원이나 신성보다는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불교에서 자살은 비존재에 대한 열망에서 초래되는 고통의 한 형태로 이해하며, 또한 자살의 결과로 고통이 끝나지 않으며 슬픔에 가득찬 공간에 다시 태어남으로써 끝없이 고통을 당한다고 믿는다(Disayavanish and Disayavanish, 2007: 1682). 불교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생에 대해 부정적이며 따라서 자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러나 불교 또한 신념과 관행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개별 종파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불교는 크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뉘고 각각이 또한 많은 교파를 갖고 있다. 소승불교는 구원의 여정이 개인적인 것이고 자신의 행위에 기초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대승불교는 타인의 구원에 따라 자신의 구원도 결정된다고 믿는데 (Finn and Rubin, 2000: 320), 우리나라의 불교는 대승불교에 속한다. 소승불교에서는 개인의 영적 안녕이 높고, 대승불교에서는 종교적 공동체를 중시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불교가 과연 이러한 기전을 통해 자살 행동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는가는 향후 큰 표본을 사용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자살의 경우 살해자가 회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살보다 더 큰 범죄로 인식했다(Kaplan and Schoeneberg, 1988: 155). 또한 유대교는 종교적 공동체 속으로 구성원들을 통합하려는 공동체 신앙체계라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자살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도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Lester, 1996: 834).

천주교는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 자살을 죄로 인식하고 기독교에 비해 더 많은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경향이 있다. 천주교는 교회의 성례(의식)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기구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자살의 보호 효과가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Nelson et al., 2012: 62). 그러나 천주교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다(Nelson et al., 2012: 62).

기독교(protestantism)는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에 필요한 전부이며, 개인과 신과의 관계가 개인적이라고 믿는다. 이는 구원을 위해 보다 제도적인 관행에 무게를 두는 천주교와 대조된다. 하지만 자살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근거로 자살을 죄로 규정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기독교 교단들은 자살에 관한 그들의 관점을 상당히 완화시켰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Loewenthal et al., 2003: 178-179). 뒤르켐은 기독교도들이 천주교도들과 비교했을 때 공통된 신념과 관행을 덜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통합의 수준이 낮고 따라서 자살률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Stack and Wasserman, 1992: 457). 한편 Servis(2004: 63-64)는 기독교가 개별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형태로 매우 긴밀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많은 교단이 있기 때문에 교단별로 이러한 공동체적 긴밀성의 차원에서 수준이 다양할 수 있고 따라서 자살에 대해 서로 다른 관련성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다 보수적인 교단이 낮은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고(Stack and Wasserman, 1992: 457), 선교적 교단이 비선교적 교단에 비해 자살에 대한 보호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Pescosolido and Georgianna, 1989: 33).

이상을 종합하면, 유대교, 천주교, 불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현대로 오면서 자살에 대한 관점이 다소 완화되면서 전통적으로 가정되어 온 사회통합의 기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영적 안녕의 개념과 기독교, 자살과의 관계

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은 영성(spirituality)을 측정하는 개념이며, 영성은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이다(Cotton et al., 2006: 472). 미국 정신의학계는 종교 혹은 영적 문제를 신앙의 상실 혹은 의문을 품는 것을 포함한 고통스러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신앙으로 귀의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혹은 제도화된 교회나 종교기관과 관련되지 않은 영적인 가치에 의문을 갖는 문제로 정의하였다(최지영, 2012: 240). 영성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며, 세상을 보다 질서 있고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정서적인 안녕을 가져온다(Garroutte et al., 2003: 1576). 또한 영성은 절대자나 우주와의 초월적 관계로 이해되기도 한다(Stoll, 1989: 4).

영적 안녕은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으로 구성할 수 있다(최지영, 2012: 242). 종교적 안녕이 신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안녕이라면, 실존적 안녕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짐으로써 얻는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다(최지영, 2012: 242). 영적 안녕은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절망감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살 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다(최지영, 2012: 241; Garroutte et al., 2003: 1577). 즉, 영적 안녕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최순옥·김숙남, 2011: 191).

대부분의 종교가 절대자 혹은 초월자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지만 기독교는 특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Nelson et al., 2012: 63). 예를 들어 같은 유대-기독교 전통을 가진 유대교에서는 공동 기도와 안식일에서 공동체와 가족 단위의 활동이 중요하고, 천주교에서는 교회에서의 의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고 개인적인 구원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이외의 사회적 활동에 의미를 덜 부여한다. 기독교의 이러한 특성은 영적 안녕 가운데 신과의 관계에서 얻는 종교적 안녕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자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게 한다.

### 3.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기독교, 자살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는 자살시도(Arria et al., 2009: 230; Kaslow et al., 2005: 400)와 자살사망(Poudel-Tandukar et al., 2011: 1545; Zhang et al., 2010: 773)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는 정서적, 도구적, 평가적, 정보적 지지가 있다(Weiss, 1974: 18-19). 정서적 지지는 사랑, 보살핌, 동정 및 이해,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존중 혹은 가치와 관련이 있다. 도구적 지지는 눈에 보이는 필요에 대한 도움을 말하고, 평가적 지지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거나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적 지지는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독교인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더 강한 인식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enig, 2001: 97; Moxey et al., 2010: 82). 교회 구성원들은 보다 큰 사회적 연결망을 갖고 있고 서로 더 많은 접촉을 하며 이러한 관계의 질과 지지에 대하여 보다 우호적인 인식을 갖는다(Ellison and George, 1994: 46; Bradley, 1995: 259). 종교적 공동체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은 강한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을 가질 수 있다. 자살의 대인적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어딘가에 소속될 필요가 있고 이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즉 사회적으로 고립될 때 자살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Van Orden et al., 2010: 575).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이 낮다.

## III. 연구 방법

### 1. 자료

#### (1) 자료수집 방법

충남의 한 4년제 대학교 학생 가운데 편의로 포집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였다. 종이에 인쇄된 설문지를 강의시간 전후에 배포하고 자가 기입을 하게 한 후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안내서에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책임자를 소

개하였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설문  
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총 430부가 수집되었고 이 중 동  
일한 응답을 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12부를 제외하고 418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 (2) 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무교를 비교군으로 한 기독교이고, 종속변수는 자살 생각이  
며, 매개변수로서 영적 안녕과 사회적 지지를 사용하였다. 자살 생각 도구는 19개 문  
항으로 구성된 Beck's Scale for Suicide Ideation(Beck et al., 1979: 250)이었는데 박  
광배 외(1990: 16-18)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Chronbach alpha는 0.8691이었다.

영적 안녕은 Paloutzion과 Ellison(1982: 224-237)이 개발한 척도를 정성덕 외(2004:  
154)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문항들(1, 2, 5, 6, 9, 12, 13, 16,  
18)은 역코딩을 하였다. 영적 안녕 측정도구는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의 두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문항은 10개이다. 종교적 안녕을 구성하는 문항에는  
'나는 나의 기도로 인해 나타난 효과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보살펴준다고 믿는다,' '나는 신과 개인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실존적 안녕에는 '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인생을 하나의 값진 경험을 쌓는 데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이다,' '나의 인생에는 어떤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의 Chronbach alpha는 각각  
0.8928, 0.8477이었고, 전체 척도의 Chronbach alpha는 0.8828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Zimet et al.(1988: 610-617)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저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로부터 7점 '정말 그렇다'까지  
의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Zimet, 1988: 610). Chronbach alpha는 0.9717이었다. 이 척  
도는 가족, 친구, 그리고 일반적 사회적 지지라는, 네 개 문항으로 구성된 세 개의 하  
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Chronbach alpha는 0.9249, 0.9509, 0.9461이었다.

이 밖에 대학생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와 가질 수 있는 혼합효과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통제



변수에는 성별, 나이, 스트레스, 학업 성적,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적 형편, 주관적 건강 상태,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스트레스는 ‘대단히 많이 느낌’과 ‘많이 느낌’을 비교집단으로 하고 ‘조금 느낌’과 ‘거의 안 느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학업 성적의 경우 B이상(3.0)의 학점 미만과 이상을 비교하였다.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최하층’과 ‘하층’을 비교집단으로 하고 ‘중산층’과 ‘상층’ 및 ‘최상층’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또래와 비교한 건강상태로 정의하였고 ‘매우 불건강’과 ‘조금 불건강’을 비교군으로 ‘보통’과 ‘조금 건강’ 및 ‘매우 건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학과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조금 만족’을 비교군으로 하고 ‘보통’과 ‘조금 만족’ 및 ‘매우 만족’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 2. 분석방법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하여 유의한 효과를 가져야 한다. 즉, 기독교의 유무가 자살 생각과 유의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둘째, 독립변수인 기독교 유무가 매개변수인 영적 안녕 및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놓은 모형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독립변수, 즉 기독교 변수가 종속변수, 즉 자살 생각에 가지는 영향력이 첫 번째 조건에서보다 약해지거나 없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매개변수의 확인을 위해 Sobel-Goodman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STATA 11.2를 사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표본의 특성

전체 표본 가운데 기독교인이 30.38%였다. 성별로는 여자가 63.55%로 남자보다 더 많았다. 학년별로는 저학년이 더 많았고 평균 나이는 20.82세였다. 스트레스 수준은

‘많이 느낌’ 혹은 ‘대단히 많이 느낌’으로 응답한 사람이 66.03%에 이르렀고 ‘거의 안 느낌’으로 응답한 사람은 2.87%에 불과하였다. 과거 성적의 평균이 B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80.62%였다. 경제적 형편이 최하층 혹은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8.71%였고 상층 혹은 최상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46%였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조금 건강’ 혹은 ‘매우 건강’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7.24%였고, ‘조금 불건강’ 혹은 ‘매우 불건강’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8.47%였다. 학과 만족도에 47.84%가 ‘매우 만족’ 혹은 ‘조금 만족’으로 응답하였고, 21.39%가 ‘매우 불만족’ 혹은 ‘조금 불만족’으로 응답하였다.

〈표1〉 표본의 특성

변수	빈도(n=418)	백분율(%)	
종교	기독교	127	30.38
	무교	291	69.62
성별	남자	148	36.45
	여자	258	63.55
만 나이	평균(표준편차): 20.82 (0.09)		
학년	1학년	154	36.84
	2학년	115	27.51
	3학년	71	16.99
	4학년	78	18.66
스트레스 (대단히) 많이 느낌	조금 느낌	276	66.03
	거의 안 느낌	130	31.10
	거의 안 느낌	12	2.87
성적 B 이상	예	337	80.62
	아니오	81	19.38
경제적 형편	최하층/하층	120	28.71
	중산층	271	64.83
	상층/최상층	27	6.46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불건강/조금 불건강	매우 불건강/조금 불건강	77	18.47
	보통	143	34.29
조금 건강/매우 건강	197	47.24	
학과 만족도			
매우 불만족/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조금 불만족	89	21.39
	보통	128	30.77
조금 만족/매우 만족	199	47.84	

다음으로 <표2>는 기독교인 표본 127명의 종교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지난 1년간 예배 참석 빈도는 월 4회 이상이 37.01%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혹은 미만이 29.92%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1년간 한 번도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14.96%에 달하였다.

한편 종교를 가진 기간은 10년~20년이 41.73%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이 33.07%로 다음으로 많아 대부분 어릴 때부터 종교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 정도에 대해서는 39.37%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28.35%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2〉 기독교인의 종교 활동

변수	빈도(n=127)	백분율(%)
지난 1년간 예배 참석 빈도		
0회	19	14.96
월 1회 혹은 미만	38	29.92
월 2회	10	7.87
월 3회	13	10.24
월 4회 이상	47	37.01
종교를 가진 기간		
1년 미만	6	4.72
1년~3년	8	6.30
3년~5년	5	3.94
5년~10년	13	10.24
10년~20년	53	41.73
20년 이상	42	33.07
종교에 대한 열심		
낮은 편	50	39.37
보통	41	32.28
높은 편	36	28.35

## 2. 기독교인 여부에 따른 영적 안녕,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의 차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

〈표3〉은 기독교인과 무교인 간에 영적 안녕,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살 생각의 수준을 보여준다. 기독교인은 무교인에 비해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하위 개념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자살생각의 수준은 기독교인이 무교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기독교인과 무교인 간의 영적 안녕,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살생각의 수준

평균(표준편차)	기독교인(n=127)	무교인(n=291)	t-test p-value
영적 안녕			
종교적 안녕	40.91(10.68)	25.71(8.60)	<0.001
실존적 안녕	43.30(8.20)	40.94(9.72)	<0.05
사회적 지지			
가족의 사회적 지지	21.89(5.67)	22.31(5.24)	0.464
친구의 사회적 지지	21.33(5.65)	21.71(5.47)	0.518
일반적 사회적 지지	21.98(5.73)	22.13(5.32)	0.789
자살 생각	5.46(5.24)	6.71(5.64)	0.033

한편 기독교인의 종교 활동에 따라 자살 생각의 수준이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4>와 같다. 그 결과 예배 참석 횟수와 종교를 가진 기간과는 관련이 없었고, 종교적 열심과는 90% 유의수준에서 관련이 있었다. 종교적 열심이 낮은 편과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자살생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독교인의 종교 활동에 따라 자살생각의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유의수준이 낮아 이후 기독교 유무별로만 분석하고 기독교인의 하부 특성별로는 분석하지 않기로 하였다.

〈표4〉 기독교인의 종교 활동과 자살생각의 관계: ANOVA 분석 (n=127)

변수	평균	표준편차	ANOVA p-value
예배 참석 횟수			0.501
0회	7.3	6.8	
월 1회 혹은 미만	5.4	5.4	
월 2회	7.9	7.4	
월 3회	6.6	4.9	
월 4회 혹은 이상	5.8	5.5	

변수	평균	표준편차	ANOVA p-value	
종교를 가진 기간			0.122	
1년 미만	6.3	6.7		
1년~3년	11.7	7.7		
3년~5년	8.3	5.6		
5년~10년	5.4	5.8		
10년~20년	4.8	4.5		
20년 이상	6.7	6.2		
종교적 열심			0.051	
낮은 편	6.8	6.4		
보통	4.8	4.3		
	높은 편	6.9	6.5	

### 3. 기독교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적 안녕의 매개효과

<표5>는 영적 안녕의 두 개의 하위 개념인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 각각이 기독교와 자살 생각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한 Sobel-Goodman test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1)~(3)은 종교적 안녕의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로서, (1)은 독립변수인 기독교가 종속변수인 자살 생각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2)는 독립변수인 기독교가 매개변수인 종교적 안녕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3)은 매개변수인 종교적 안녕을 모형 (1)에 추가하였을 때 종교적 안녕은 자살 생각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면서 독립변수인 기독교는 더 이상 자살 생각과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게 됨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독교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가 종교적 안녕의 매개에 의한 효과이며, 이 효과는 기독교가 갖는 전체 효과의 90.7%를 차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4)~(6)은 기독교가 자살 생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고(4), 기독교는 매개변수인 실존적 안녕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5), 실존적 안녕을 추가하였을 때 실존적 안녕은 자살 생각을 유의하게 낮추지만 기독교는 더 이상 자살 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지 않음을(6) 보여준다. 이는 기독교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실존적 안녕의 매개효과 때문이며, 이 효과는 기독교가 갖는 전체 효과의 36.6%를 차지하는 것이다.

<표5> 기독교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영적 안녕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교적 안녕의 매개효과 분석			실존적 안녕의 매개효과 분석		
	종속변수					
	자살생각(1)	종교적 안녕(2)	자살생각(3)	자살생각(4)	실존적 안녕(5)	자살생각(6)
종교적 안녕			-0.069*			
실존적 안녕						-0.188***
기독교	-1.176*	15.450***	-0.109	-1.176*	2.288*	-0.746
성별(남자)	-1.048	-0.058	-1.051	-1.048	-0.415	0.970
나이	-0.224	0.077	-0.218	-0.224	0.682**	-0.095
B이상 학점	-1.853**	-1.164	-1.933**	-1.853**	2.925*	-1.303
스트레스 (매우)많음	3.540*	-3.996	3.264*	3.540*	0.370	3.609*
스트레스 보통	3.427*	-1.931	3.294*	3.427*	2.990	3.989**
경제적 형편 (매우)나쁨	0.164	4.401*	0.468	0.164	2.224	0.582
경제적 형편 보통	-0.257	6.227**	0.173	-0.257	1.769	0.075
건강수준 (매우)나쁨	3.166***	-1.651	3.052***	3.166***	-4.309***	2.356**
건강수준 보통	0.362	-0.292	0.342	0.362	-1.103	0.154
학과 (매우)불만족	1.899**	-2.630*	1.178*	1.899**	-5.720***	0.824
학과 보통	0.421	-1.447	0.321	0.421	-2.869**	-0.119
상수	9.812**	9.028	10.436**	9.812**	23.168**	12.072**
Sobel-Goodman test results	Indirect effect p<0.05 Direct effect p=0.877 Proportion of the total effect that is mediated: 90.7%			Indirect effect p<0.05 Direct effect p=0.161 Proportion of the total effect that is mediated: 36.6%		

<표6>은 사회적 지지의 세 개의 하위개념인 가족, 친구, 일반적 사회적 지지 각각이 기독교와 자살 생각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를 확인한 Sobel-Goodman test 결과이다. (7)~(9)는 독립변수인 기독교가 자살 생각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으나(7), 매개변수인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고(8), (7)에 매개변수를 추가한 (9)에서 매개변수 또한 자살 생각을 유의하게 낮추지만 독립변수인 기독교는 여전히 유의하면서 그 효과의 크기가 (7)에서보다 더 커짐으로써 매개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친구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인 (9)~(11)과 일반적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인 (12)~(14)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준다.

〈표6〉 기독교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족의 사회적 지지(7)	가족의 사회적 지지(8)	자살생각(9)	자살생각(10)	친구의 사회적 지지(11)	자살생각(12)	자살생각(13)	일반적 사회적 지지(14)	자살생각(15)					
가족의 지지			-0.295***											
친구의 지지														
일반적 지지														
기독교	-1.289*	-0.470	-1.427**	-1.303*	-0.415	-1.412**	-1.303*	-0.209	-0.270***	-1.359*				
성별(남자)	-1.057	-0.142	-1.099	-1.082	-1.246*	-1.407*	-1.082	-1.372*	-1.453*					
나이	-0.230	0.379**	-0.118	-0.224	0.283	-0.150	-0.224	0.307*	-0.141					
B이상 학점	-1.665**	0.335	-1.567*	-1.661*	0.089	-1.638*	-1.661*	0.248	-1.594*					
스트레스 (매우) 많음	3.427*	1.117	3.756*	3.415*	1.462	3.797*	3.429*	0.553	3.579*					
스트레스 보통	3.272*	1.603	3.745*	3.247*	2.203	3.822*	3.262*	1.232	3.595*					
경제적 형편 (매우) 나쁨	0.672	0.685	0.874	0.663	2.600*	1.342	0.670	0.294	0.749					
경제적 형편 보통	0.194	1.008	0.491	0.199	2.575*	0.871	0.205	0.436	0.323					
긴장수준 (매우) 나쁨	3.296***	-3.782***	2.181**	3.291***	-3.918***	2.269**	3.292***	-4.197***	2.158**					
긴장수준 보통	0.362	-1.315*	0.007	0.415	-1.044	0.143	0.415	-1.063	0.128					
학과 (매우) 불만족	1.908**	-3.063***	1.005	1.903**	-3.568***	0.973	1.903**	-3.377***	0.991					
학과 보통	0.419	-1.392*	0.008	0.444	-1.763**	-0.016	0.444	-1.116	0.143					
상수	9.557*	14.594***	11.747**	9.468*	14.979***	10.562**	9.456*	17.374***	11.243**					
Sobel-Goodman test results	Indirect effect p=0.382 Direct effect p<0.01			Indirect effect p=0.449 Direct effect p<0.01			Indirect effect p=0.698 Direct effect p<0.05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영향이 영적 안녕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는 무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자살 생각과 관련이 있었고, 이 관계는 영적 안녕에 의해서 매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 1. 기독교와 자살생각

충남 지역의 1개 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기독교(protestantism)는 유의하게 자살 생각을 낮추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전통적인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완화해온 경향이 있고, 공통된 신념과 관행을 덜 가진다는 이유로 천주교에 비해 자살이 높을 수 있다는 뒤르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독교가 자살 생각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최지영(2012: 254)은 역시 충청도 소재의 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자살사고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는 달리 통제변수들을 사용하지 않은 상관관계 분석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도 종교와 자살은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Koenig et al.(2001: 97)은 문헌고찰 결과 84%의 연구가 보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자살률이 낮다고 보고하였으나, Eshun(2003: 165)과 Lowenthal et al.(2003: 174)은 종교와 자살 생각 사이에 아무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기독교와 자살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내외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사실은 이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 결과 기독교가 무교에 비해 자살 생각이 낮았지만 예배 참여 횟수와 종교를 가진 기간은 자살 생각과 관련이 없었다. 종교적 열심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낮은 편 혹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자살생각이 낮았으나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기독교라고 본인의 종교를 규정하는 경우 종교 활동의 특성에 상관없이 무교에 비해 자살 생각이 낮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인의 표본수가 127명으로 작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보다 큰 표본을 사용하여 종교 활동의 특성별로 자살 생각과의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신앙생활 혹은 교회 활동의 어떤 측면이 대학생들의 자살 생각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2. 기독교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영적 안녕의 매개효과

기독교가 유의하게 자살 생각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영적 안녕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영적 안녕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기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적 안녕이 기독교와 자살 생각의 관계를 매개하고 사회적 지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영적 안녕의 두 가지 차원인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 모두 매개효과가 있었고, 특히 종교적 안녕의 매개효과는 기독교의 자살 생각에 대한 전체 효과의 90.7%를 매개하여 36.6%를 매개한 실존적 안녕보다 매개효과보다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종교적 안녕은 신과의 관계 자체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종교적 안녕 척도에 포함된 항목들에는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보살펴준다고 믿는다,’ ‘나는 신과 개인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신이 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는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에 필요한 전부이며, 개인과 신과의 개인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살 생각을 낮추는 것은 신과의 개인적 교감에서 비롯되는 종교적 안녕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최지영(2012: 256)의 연구에서는 무교와 비교할 때 기독교 대학생의 자살사고에 있어서 실존적 안녕만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들은 향후 유사한 연구가 반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기독교인의 하위 집단별 분석을 통해 기독교의 어떤 특성들이 각각 종교적 안녕 및 실존적 안녕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또한 기독교가 실존적 안녕을 통해서도 자살 생각을 낮추는 것을 발견하

였다. 실존적 안녕은 삶에 일관성과 목적을 부여하며, 자신이 믿는 어떤 초월적인 힘 혹은 존재로부터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Mascaro and Rosen, 2006: 168). 이를 통해 실존적 안녕은 개인의 인간성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고, 다른 이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의 고통과 소외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매일의 삶의 세속적인 측면과 초월적인 측면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조휘일, 2005: 10).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 실존적 안녕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최지영, 2012: 256; 박재연 외, 2010: 81; Wang et al., 2007: 195).

영적 안녕이 기독교와 자살 생각을 매개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Stark et al.(1983: 122)이 종교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의 기전으로 주장한 종교적 헌신(committment)에 대한 실증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기독교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이나 불안을 완화시킴으로써 자살충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사회 통합 이론과 상징적 상호주의 이론은 사회적 지지의 결핍이 무의미와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초래함으로써 정신적 문제에 빠질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Vilhjalmsson, 1993: 332). 또한 생물학적으로는, 사회적 지지가 생리적인 활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증가시키고, 면역 반응을 강화하며, 인생의 위기를 대처하는 건강한 행태를 증진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Cohen and Wills, 1985: 312).

본 연구의 목적이 사회적 지지의 자살 생각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표6>에서와 같이 가족, 친구, 일반적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모두 자살 생각과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사람들에게서 자살시도나 자살충동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최윤정(2012: 77)은 대학생 자살 생각에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인 보호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연현진(2008: 1)은 특히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 자살 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한수미(2012: 135-136)는 가족 및 교사의 지지가 자살 생각과 관련이 있고 친구의 지지는 유의한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의 낮은 자살 생각이 사회적 지지로 매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 친구, 혹은 기타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무교집단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족의 경우 불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친구의 지지나 기타 일반적인 지지를 교회에서 얻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에서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회가 사회 통합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던진다고 할 수 있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1개 대학교 학생들을 편의로 모집하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표본수의 한계로 각 종교 내부의 다양한 하위집단의 특성을 살펴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살 생각 도구는 연속변수로서 점수의 높고 낮음에 있어서 임상적인 해석을 할 수 없다. 즉, 몇 점 이상이면 임상적으로 위험한 수준의 자살생각인지를 알 수가 없고, 몇 점 차이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도 알 수가 없다.

####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 기독교인은 무교에 비해 자살 생각이 더 낮았고, 이는 영적 안녕의 두 하위 개념인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 모두의 매개효과 때문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 두 가지 매개변수 가운데서도 특히 종교적 안녕은 기독교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전체 영향의 90.7%를 매개하여, 36.6%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실존적 안녕에 비해 기독교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더 많이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독교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개인의 삶에 개입하심, 그리고 개인과의 교제하심 등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인이 무교인에 비해 자살생각을 덜 하게 되는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동시에 신앙생활 속에서 얻는 삶의 의미와 목적인 실존적 안녕도 기독교인인 대학생들의 자살 생각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기독교는 신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과 이에 따라 얻게 되는 개인의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으로 말미암아 대학생을 자살 생각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무교인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과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특별히 사회적 지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교회에서의 성도들 간의 교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김정진 (2009).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연구, 자살시도 경험, 정신건강, 심리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 413-437.
- 김희숙·채영선·배영주 (2012). “종교계 고등학교 남학생의 자살위험성 보호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2(1). 1-8.
- 뒤르껼 (1897/2009). 『자살론』. 황보종우 역. 파주: 청아출판사.
- 박광배·김중술·오경자·신민섭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20.
- 박재연·임연옥·윤현숙 (2010). “한국인의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이르는 경로분석: 실존적 영성, 가족의 지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4). 81-105.
- 연현진 (2008). “학교 생활 적응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 정성덕·이종범·김진성·서완석·배대석·박순재·주열 등 (2004). “중국거주 조선족 여성의 영적 안녕정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영남의대학술지』. 91(2). 151-166.
- 조휘일 (2005). “사회사업실천을 위한 영성연구.” 『사회복지실천』. 5. 5-20.
- 최순옥·김숙남 (2011).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영성.”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2). 190-199.
- 최윤정 (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작용하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3). 77-104.
- 최지영 (2012). “대학생의 영적 안녕,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의 비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1). 237-262.
- 통계청 (2011). “201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11년 9월 8일 보도자료.
- 한수미 (2012). “대중매체의 자살보도 및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5(1). 133-142.
- Arria, A. M., O’Grady, K. E., Caldeira, K. M., Vincent, K. B., Wilcox, H. C., Wish, E. D. (2009). “Suicide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a multivariate analysi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3. 230-246.
- Beck, A. T., Kovacs, M.,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 Boyd, K. A., and Chung, H. (2012). “Opinions toward suicide: Cross-national evaluation of cultural and religious effects on individuals.” *Social Science Research* 41. 1565-1580.
- Bradley, D. E. (1995). “Religious involvement and social resources: Evidence from the Americans’ changing lives data.”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4. 259-267.
- Cohen, S., and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tton, S., Zebracki, K., Susan, S., Tsevat, J., Drotar, D. (2006). “Religion/spirituality and adolescent health outcomes: a review.”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 472-480.
- Disayavanish, C., and Disayavanich, P. (2007). “A Buddhist approach to suicide prevention.” *Journal of the Medical Association of Thailand* 90(8). 1680-1688.
- Ellison, C. G., and George, L. K. (1994). “Religious involvement, social ties and social support in a southeastern communit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3. 46-61.
- Eshun, S. (2003). “Sociocultural determinants of suicide ideation: a comparison between American and Ghanaian college sample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3. 165-171.
- Finn, M., and Rubin, J. B. (2000). “Psychotherapy with Buddhists.” In P. Richards & A. Bergin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Religious Diversit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arrouette, E. M., Goldberg, J., Beals, J., Herrell, R., Manson, S. M., AI-SUPERPPFP Team. (2003). “Spirituality and attempted suicide among American Indians.” *Social Science & Medicine* 56. 1571-1579.
- Kaplan, S. J., and Schoeneberg, L. A. (1988). “Defining suicide: Importance and implications for Judaism.”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7(2). 154-156.
- Kaslow, N. J., Sherry, A., Bethea, K., Wyckoff, S., Compton, M. T., Bender Grall, M., et al. (2005). “Soci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in low income African American men and wome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 400-412.
- Koenig, H. G. (2001). “Religion and medicine II: Religion, mental health, and related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31(1). 97-109.
- Lester, D. (1996). “Comment on Jewish affiliation in relation to suicide rates.” *Psychological Reports* 78. 834.
- Loewenthal, K. M., MacLeod, A. K., Cook, S., Lee, M., Goldblatt, V. (2003). “The suicide beliefs of Jews and Protestants in the UK: how do they differ?” *Israel Journal of Psychiatry and Related Sciences* 40. 174-181.
- Mascaro, N., and Rosen, D. H. (2006). “The role of existential meaning as a buffer against stres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46(2). 168-190.
- Moxey, A., McEvoy, M., Bowe, S., Attia, J. (2011). “Spirituality, religion, social support, and health among older Australian adults.” *Australian Journal on Aging* 30(2). 82-88.
- Nelson, G., Hanna, R., Hourii, A., Klimes-Dougan, B. (2012). “Review: Protective functions of religious traditions for suicide risk.” *Suicidology Online* 3. 59-71.
- Paloutzian, J. F., and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L. A. Peplau and K. Perman, *Loneliness: A sourcebook of*

- the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Wiley Interscience.
- Pescosolido, B. A., and Georgianna, S. (1989). "Durkheim, suicide, and religion: Toward a network theory of suicid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1). 33-48.
- Poudel-Tandukar, K., Nanri, A., Mizoue, T., Matsushita, Y., Takahashi, Y., Noda, M., Tsugane, S. (2011). "Social support and suicide in Japanese men and women-The Japan Public Health Center(JPHC)-based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5. 1545-1550.
- Rasic, D., Kisely, S., Langille, D. B. (2011). "Protective associations of importance of religion and frequency of service attendance with depression risk, suicidal behaviours and substance use in adolescents in Nova Scotia, Canad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2. 389-395.
- Robins, A., and Fiske, A. (2009). "Explaining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ness and reduced suicidal behavior: Social support rather than specific belief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9(4). 386-395.
- Servis, M. E. (2004). "Protestant Christians." In A. Josephson & J. Peteet (Eds.), *Handbook of Spirituality and Worldview in Clinical Practice*.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Stack, S., and Kposowa, A. J. (2011). "Religion and suicide acceptability: a cross-national analysi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0(2). 289-306.
- Stack, S., and Wasserman, I. (1992). "The effect of religion on suicide ideology: An analysis of the networks perspectiv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1(4). 457-466.
- Stark, R., Doyle, D. P., Rushing, J. L. (1983). "Beyond Durkheim: religion and suicid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2. 120-131.
- Stoll, R. I. (1989). "The essence of spirituality." In V. B. Carson, *Spiritual dimensions of nursing practice*. Philadelphia, PA: W. B. Saunders.
- Van Orden, K. A., Witte, T. K., Cukrowicz, K. C., Braithwaite, S. R., Selby, E. A., Joiner, T. E.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2). 575-600.
- Van Tubergen, F., te Grotenhuis, M., Ultee, W. (2005). "Denomination, religious context, and suicide: neo-Durkheimian multilevel explanations tested with individual and contextual dat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1(3). 797-823.
- Vilhjalmsson, R. (1993).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clinical depression: a reanalysis of the literature." *Social Science & Medicine* 37. 331-342.
- Wang, M. C., Lightsey, O. R., Pietruszka, T., Uruk, A. C., Wells, A. G. (2007). "Purpose in life and reasons for living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and suicidal behavior."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3). 195-204.
- Weiss, R. S. (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Doing*

*unto others*. Englewood Cliffs. 17-26. NJ: Prentice Hall.

Zhang, J., Xiao, S., Zhou, I. (2010). "Mental disorders and suicide among young rural Chinese: a case-control psychological autopsy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7. 773-781.

Zimet, G. D., Powell, S. S., Farley, G. K., Werkman, S., Berkoff, K. A. (199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610-617.



## ABSTRACT

# Mediating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in the Effect of Christianity on Suicidal Ide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 A Study of One University in Chungnam –

Eun-Jeong Kang(Soonchunhyang University)

Jae-Hee Lee(Gacho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 of Christianity, as a protecting factor against suicide ide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to find out whether this effect was mediated by spiritu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In order to analyze these, 418 university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in Chungnam were surveyed in December, 2012. The study results found that Christians had less suicidal ideation than those who had no religion.

It was also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suicidal ideation between Christians and non-religious group was mediated by both religious well-being and existential well-being which were the two sub-constructs of spiritual well-being.

At the same time, religious well-being or religious commitment had a greater mediating effect than existential well-being. This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Christianity stressing mo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an individual than the one between an individual and others or a community.

Meanwhile, Christians were not different from non-religious group in the level of social support and thus social support was not a mediator between being a Christian and suicidal ideation. This implies that the fellowship among church members should be the one where members

can obtain practical supports from it.

Key Words: University students, Christianity, Suicide ideation, Spiritual well-being,  
Social support